

특히 한국 고유 음식의 전주 비빔밥과 순창 고추장은 전통 적 맛의 고향으로 더욱 이름이 나 있다.

문화행사 문화행사로는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주국제영화제, 춘향제, 김제 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지리산 비래봉 철쭉제와 전주-군산 벚꽃축제, 익산 보석문화축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정읍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 군산 철새축제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김영배

〈부의장〉 황헌, 이상현

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교체 전북도의회는 새 의장에 김영배(익산2) 의원이 선출됐다.

김영배 신임 의장은 1월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의 의장 보궐선거에서 투표 참가자 32명(전체 36명) 중 30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양성빈(장수) 의원이 뽑혔다.

이들의 임기는 제10대 의회 의장단의 잔여 임기와 마찬가지로 6월 말까지 5개월 남짓이다.

이날 보궐선거는 김광수 전 도의장과 김연근 전 행정자치위원장이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의원직을 사직한 데 따른 것이다.

의원 전문성 강화 주력 제10대 전북도의회는 2015년 민생과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송하진 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을 의회로 불러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 잘못된 행정 적극 시정 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적극 시정하는 감사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제10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04건으로 의원발 평균 5.4건이다. 이는 광역의회 중 대전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도 단위에서는 가장 많다.

또, 2015년에는 177건으로 9대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21배 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노인, 아동, 비정규직근로자, 농어업인 육성, 체육,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 열린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모두 91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620건에 비해 46.7%(290건) 늘어난 결과다.

8조원 규모 예산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전북도 예산안 5조2천459억원 및 도교육청 2조6천882억원 등


모두 7조9천341억원과 2015년도 추경예산 8조5천694억원(도 5조7천383억원, 도교육청 2조8천311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 중심의 의회, 정책토론회 확대 왕성한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타시·도에 비해 뒤처진 전북의 발전과 다양한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집행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개 상임위원회가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과 전주장학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찾았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방안과 요양병원, 의료원, 새만금 현지를 찾아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산업 추진현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여부 등을 확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즉각적인 환경개선과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실공사나 감독 및 감리 여부 등을 진단했다.



전라남도



道花 : 동백 **道鳥** : 산비둘기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남도와 남이

도청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도지사 : 이낙연(李洛淵)

개관

연혁 마한의 옛터로 근초고왕 때 백제에 속하게 됐고 고려 성종(995년) 때 해양도로 불려진 뒤 전라도·전광도로 개칭되면서 전라북도와 동일문화권에 속하다가 조선 고종 33년(1896년)에 이르러 전북과 나누어져 지금의 전라남도가 탄생됐다.

전남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은 백두대간의 처음이자 끝자락인 지리산 등의 높은 산지로, 서남은 낮게 펼쳐진 평야와 다도해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지와 평야의 비율은 3대1로 전국적으로 볼 때 평야가 많은 편이며 비교적 온난하고 다습한 온대기후지역에 속한다.

특히 서남해안은 전국 도서의 65%에 해당하는 2천219개의 유·무인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6천743km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선이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서부

지역 평야지대를 남북으로 흐르며 넉넉히 적셔주는 영산강,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섬진강, 그리고 영산강과 섬진강 사이 남부 중앙부를 흐르는 탐진강 등 3대 강이 서해와 남해로 빠지면서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1946년 8월 전남에 속했던 제주도가 濟州道로 승격 분리됐고 1949년 8월 15일 광주부와 목포부가 시로 개칭되고 여수읍과 순천읍이 시로, 광양면이 읍으로 각각 승격됐으며 여수군은 여천군, 순천군은 승주군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1962년 11월 21일 영광군 위도면이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됐으며 구례, 화순, 함평 등 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무안군 도서지역 11개 면이 신안군으로 독립됐다. 1973년 7월 1일 고흥군 도양면이 도양읍으로 승격되고 1979년 5월 1일에는 곡성·고흥·영암·무안·진도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여천군 여자도에 여자출장소가 설치됐다.

1980년 10월 21일 삼일·돌산·백수·관산·대덕·일로·금일·노화·지도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금성시로 승격됐다. 1983년 1월 10일 태곡·도덕·신전·북일·윤남·중도·신의·팔금 등 8개 면이 신설됐다.

1985년 1월 1일 쌍암면이 승주읍으로 흥농면이 흥농읍으로 각각 승격되고, 1986년 1월 1일 금성시가 나주시로 개칭됐으며, 여천출장소가 여천시로 승격됐다.

1986년 11월 1일에는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독립해 나가고 송정읍이 송정시로 승격됐다. 1987년 1월 1일 목포시에 삼향동

이 신설되고 1988년 1월 1일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됐다. 1989년 1월 1일 광양지구 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순천시와 승주군, 나주시와 나주군,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돼 각각 순천·나주·광양시 등의 통합시로 출범했으며 1998년 4월 1일 여수·여천시와 여천군이 통합 여수시로 발족됐다.

2005년 11월 11일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에서 109년 만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면적·행정구역 2015년 말 현재 총면적은 1만2천312km²(전국 3위, 12.3%)로 임야 6천998km²(전체의 56.8%), 농경지 3천257km²(26.5%), 기타 2천57km²(16.7%) 등이다. 도서는 2014년 말 현재 유인도 296, 무인도 1천923개 등 2천219개로 전국 도서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6천743km에 달한다.

행정구역은 2015년 말 현재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시를 비롯해 17개 군과 29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

2016년도 도 분청 예산총액은 6조4천3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조5천556억원, 특별회계는 8천796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천280억원, 국고보조금 3조5천446억원, 지방교부세 8천338억원, 세외수입 74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천743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0%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부 4천7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천651억원, 교육 1천839억원, 문화 및 관광 3천113억원, 환경보호 4천586억원, 사회복지 1조5천616억원, 보건 1천75억원, 농림·해양수산 1조751억원, 산업·중소기업 1천296억원, 수송 및 교통 3천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천115억원, 과학기술 54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4천181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일자리 창출 국내·외 128개 기업이 6천530억원의 투자를 실현해 신규 일자리 3천965개를 창출하고, 271개 기업과 5조9천20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5년 연간 고용지표가 개선돼 고용률은 2014년 대비 0.9%p가 상승하고(전국 0.4%p 상승), 실업자는 0.4%p 감소(전국 0.1%p 증가)했다.

지역산업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 창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여수 및 광양에 개소했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예비타당성 통과),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사업, 대불·여수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다.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자동차 고급부품 및 튜닝사업의 기반을 구축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 전라남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	인구(명)
합 계	12,312.92	833,901	1,908,996
목포시	51.58	100,172	238,382
여수시	508.88	117,602	290,168
순천시	910.40	107,871	278,765
나주시	608.36	46,444	98,182
광양시	462.25	59,789	153,587
담양군	455.03	21,953	47,009
곡성군	547.46	14,994	30,672
구례군	443.24	12,672	27,308
고흥군	807.33	34,583	68,601
보성군	663.77	22,384	45,349
화순군	786.86	29,405	65,848
장흥군	622.47	20,890	43,513
강진군	500.94	18,577	38,758
해남군	1013.26	35,354	76,194
영암군	603.46	27,242	58,137
무안군	449.74	35,086	82,236
함평군	392.14	17,547	34,876
영광군	474.97	26,070	56,267
장성군	518.43	21,529	46,360
완도군	396.41	25,535	53,014
진도군	440.13	15,932	32,476
신안군	655.81	22,270	43,294

2016년도 전라남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 계	6,435,165	5,555,583	470,829	408,753
지방세	928,000	928,000	0	0
보통세	707,000	707,000	0	0
취득세	428,000	428,000	0	0
등록면허세	39,000	39,000	0	0
주민세	0	0	0	0
재산세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지방소비세	240,000	240,00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목적세	216,000	216,000	0	0
지역자원시설세	78,000	78,000	0	0
지방교육세	138,000	138,000	0	0
2014년도 수입	5,000	5,000	0	0
세외수입	143,281	74,878	41,086	27,317
경상적 세외수입	51,957	20,862	3,860	27,235
임시적 세외수입	91,324	54,016	37,226	82
지방교부세	833,791	833,791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
보조금	3,868,762	3,544,608	324,154	0
국고보조금	0	0	0	0
시도비보조금	0	0	0	0
지방채	181,160	0	0	181,16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0,171	174,306	105,589	200,276

2016년도 전라남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 계	6,435,165	5,555,583	470,829	408,753
일반공공행정	826,077	417,324	0	408,753
공공질서 및 안전	265,119	265,119	0	0
교육	183,889	183,889	0	0
문화 및 관광	314,765	311,265	3,500	0
환경보호	458,666	458,580	86	0
사회복지	1,978,010	1,561,526	416,484	0
보건	117,509	117,509	0	0
농림·해양수산	1,075,062	1,075,062	0	0
산업·중소기업	129,627	129,627	0	0
수송 및 교통	302,976	300,626	2,350	0
국토 및 지역개 발	359,935	311,526	48,409	0
과학기술	5,366	5,366	0	0
예비비	56,042	56,042	0	0
기타	362,122	362,122	0	0

지역개발 빛가람혁신도시는 공공시설, 교통·의료·판매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2015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1만2천452명으로 2014년(3천895명)대비 220%가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에 한전과 「에너지 밸리」 조성을 착수해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500개 유치 목표를 세웠으며, 지금까지 94개를 유치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공유수면 총사업비 정산제도 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구성·삼호지구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관광·문화 KTX 개통, 무안국제공항 정기성 전세기 확대(7개→14개 노선) 등으로 관광객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여수는 관광객이 1천300만 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부상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관광객 5천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전남 관광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도소리올림픽 및 작은 영화관(장흥) 개관, 도립미술관 부지(광양) 확정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했다.

농수산업 전라남도 유기농 면적은 5천365ha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을 강화한 결과 전남 친환경쌀이 서울시 학교급식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결과에서 13년 연속 최다(4개) 선정되기도 했다.

수산업은 신규어장 조성 1천504ha, 어장정화 2천790ha 등을 적극 추진해, 수산업 생산액 2조원 시대 달성이 전망된다. 이에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대중국 수출기회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라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해남),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8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100원 택시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 공동급식 506개소를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시책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간 상생협력 광주, 전남·북 간 상생협력시스템을 복원해 제2남도학숙 건립,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광주U대회 성공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영·호남 화합을 위해 경북과 백신산업 유치 등 7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농장 등 서울과의 교류협력 역시 강화하고 있다.

2대 브랜드시책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6개 섬을 선정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전국 최초로 '나무심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1천9만 그루를 식재하고, '숲 돌보미'에 247개 단체 8천500명이 참여해 민간 주도의 숲 가꾸기 문화를 조성했다.

산업

농업 2015년 말 농가는 16만 호이며 농업인구는 35만6천 명이다. 경지면적은 30만6천ha로 논은 18만8천ha, 밭은 11만8천ha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91ha이다. 2015년 기준 쌀 생산량은 86만6천으로 전국의 2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리 생산량은 3만2천으로 전국의 42.3%에 해당된다.

또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 면적은 2015년 말 기준 4만ha(유기농 5, 무농약 35)로 경지면적 30만6천ha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유기·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의 49%에 해당된다.

임업 2015년 말 현재 임야면적은 국유림 8만3천ha, 공유림 3만1천ha, 사유림 581ha 등 69만5천ha로 전국대비 10.9%이다. 임산물 생산액은 버섯 255억원, 조경재 593억원, 잔디 194억원 등 총생산액은 7천993억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2015년 말 현재 어가는 2만1천 호, 어업인구는 5만1천 명이다. 2015년 말 현재 수산물 생산량은 어류 12만1천, 패류 5만2천, 해조류 96만3천, 기타 4만6천 등 총 118만2천으로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세력 동력선이 2만7천76척 무동력선이 296척으로 전국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수산업 인증실적은 김 2천529ha, 미역 392ha, 굴 34ha, 홍합 12ha, 흰다리 새우 2ha이다.

공업 2015년 말 현재 전남의 경제활동 인구 94만8천 명 중 취업자 수는 92만4천 명으로, 농림어업 24.5%, 광공업 1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64.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 2015년 말 현재 농림수산업은 25.8%, 광공업 8.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65.7%이고, 취업자 수는 92만1천 명, 경제활동인구는 93만6천 명이다.

수출 2015년 11월 말 현재 도내 총 수출액은 280억9천900만 달러로 공산품 278억6천400만 달러, 농산식품 1억500만 달러, 수산식품 1억3천만 달러이다. 유가 하락, 중국 성장둔화, 엔저 현상 등으로 전남의 총수출은 2014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으나, 농수산식품 수출은 1.1% 감소해 전국 2.8% 감소대비 선방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화학(39.4%), 석유제품(30.8%), 철강제품(12.6%), 선박(9.0%)이다.

사회

주택 2014년 말 현재 단독주택 46만8천90동, 아파트 29만8천62동, 연립주택 1만4천759동, 다세대주택 8천698동 등 총 80만1천854호로 주택보급률은 99.8%이다.

사회복지 2015년 말 사회복지 수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만8천568명(도 인구의 4.6%), 의료급여수급자는 8만7천848명(4.6%), 등록장애인인 14만3천128명(7.6%), 노인은 39만1천837명(20.5%)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은 1만1천823개소(생활 463, 이용 1만1천360)가 있다.

시설 주요 현황으로는 생활시설의 경우 노인시설이 326개소, 장애인시설이 57개소(정신시설 8개 포함), 아동시설이 57개소, 여성시설 10개소 등이며, 이용시설의 경우 노인시설 9천524개소(경로당 8천838개소 포함), 장애인시설 93개소, 영유아시설 1천238개소, 아동시설 387개소, 여성시설 28개소 등이 있다.

보건·위생 2015년 말 공공보건의료기관 수는 보건의료원 3개소, 보건소 19개소, 보건지소 213개소, 보건진료소 326개소 등 총 561개소이며 민간의료기관 수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73개소, 의원 911개소, 한방병·의원

369개소, 치과병원·의원 445개소, 조산원 3개소 등 총 1천901개소가 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도 2척 운영 중에 있고, 2011년 9월부터 도서지역 등 응급환자 긴급후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문화

교육 2015년도 전남도 내 유치원은 552개에 원생 1만9천81명, 초등학교 수는 424개교에 9만5천722명이고, 중학교는 249개교에 학생 6만4천300명, 고등학교는 148개교에 7만238명이다. 전문대학은 10개교에 2만2천625명, 일반대학교는 10개교에 3만2천599명이며, 특수학교는 8개교에 984명이다.

문화재 2015년 말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20점, 보물 176점, 사적 44점, 천연기념물 62점, 명승 18개소, 중요민속문화재 40점, 중요무형문화재 17점이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31점, 무형문화재 49종, 기념물 192점, 민속문화재 40점, 문화재자료가 233점이다.

문화 및 체육시설 2015년 말 현재 방송국 10개소, 종합유선방송 3, 출판 및 인쇄소 1천112개소, 문예회관 25개소, 공공도서관 64, 박물관 53, 영화상영관 11, 미술관 24, 그리고 공공체육관 58, 종합경기장 24, 골프장 35개소 등이 있다.

관광 전남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 맛깔스런 음식, 섬, 갯벌 등 비교우위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국 국립공원 21개 중 6개가 전남에 있다.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륙에는 국립공원 4개소로 1호인 지리산을 비롯, 내장산(백암산, 입암산지구), 월출산, 무등산이 있고, 바다는 한려해상,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있다. 게다가 송광사와 선암사가 있는 순천 조계산, 대흥사가 있는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 갯벌공원, 신안 증도 갯벌공원 등 도립공원도 있어 자연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구례군에 78.02km², 목포 유달산, 평화광장 일원에 6.87km²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구례·화순·영암·담양·영광군, 순천시에는 온천이 개발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통 문화유산과 해안, 도서 등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이를 활용한 특색있는 축제가 각 지자체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남도 특유의 맛을 자랑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을 기념하는 '명량대첩축제' 등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대표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해남 우항리, 보성 비봉, 여수 사도·남도 등 남해안 공룡화석지와 화순 고인돌공원 등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전남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은하수처럼 펼쳐진 2천219개의 아름다운 섬, 6천743km의 리아스식 해안선, 1천44km²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세계 5대 갯벌,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3개 지역의 슬로시티 등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티웨이항공 등 전세기 취항, 여수 국제 크루즈항 접안능력(14만급) 개선, 호남고속철 개통 등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류의 과학·문화 올림픽인 여수세계박람회와 생태환경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숙박시설과 SOC 투자가 확충되고 지역 인지도가 대폭 개선되어 전남은 21세기 동북아 관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명현관

〈부의장〉 윤시석, 장 일

제10대 전라남도의회는 2014년 7월 7일 개원했으며, 도의원 정수는 58명(지역구 52, 비례대표 6)이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안처리 2015년도 한 해 동안 처리된 의안은 283건으로, 조례안 138건, 규칙안 5건, 예산안 6건, 결산안 2건, 건의안 16건, 결의안 17건, 동의안 24건, 승인안 13건, 기타 62건을 처리했다.

전년도 결산 및 예산확정 제29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전라남도 세입·세출·재무 결산'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5조6천182억1천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조1천854억2천600만원, 세계잉여금은 4천327억9천200만원을 승인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천221억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천931억6천700만원, 세계잉여금 1천289억4천100만원,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종인 2천884억4천900만원, 공유재산은 토지 등 3조6천396억4천600만원을 결산 승인했고, 예비비는 농업재해대책비 지원 외 31건에 98억400만원을 지출 승인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은 세입 결산액 3조7천246억9천400만원, 세출 결산액 3조3천852억9천100만원, 세계잉여금 3천394억300만원을 결산 승인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전라남도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보다 1천532억원이 증액된 6조4천352억원이며, 교육청 예산은 2014년보다 993억원이 증액된 3조1천527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건의·결의안 채택 2015년에 건의안·결의안 총 33건(건의안 16, 결의안 17)을 채택해 국회, 정당, 청와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했다.

건의안 16건 중에는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기를 촉구 건의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건의안',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에 따


른 대책 촉구 건의안',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 안전시설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 등이 있다.

한편 결의안 17건 중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즉각 개정과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 반대 촉구 결의안',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가격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있다.


도정질문 2015년도 상반기(4월)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나주 출신 김욱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나주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도내 거점 고등학교 육성 방안' 등 77건(도청 65, 교육청 12)을 질문해 도지사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하반기(10월)에 실시한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목포 출신 김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친환경 농산물 등 고부가 농·식품 산업 육성 방안', '지방도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대책', '특성화 고의 인문계고 전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실현 방안 등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 되도록 했으며 각종 현안 76건(도청 61, 교육청 15)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실시해 도지사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행정사무감사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20일~12월 2일(13일간)까지 전남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사업소, 전남개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84개소에 대해 2015년도에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장 21, 주의 8, 개선 93, 권고 248, 건의 23건 등 총 393건을 지적했다.



경상북도



道花 : 백일홍 **道鳥** : 왜가리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신나리

도청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도지사 : 김관용(金寬容)

개관

연혁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 경상도라 칭함. 1896년 전국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라 칭하고 대구에 관찰사를 둠. 1949년 대구·포항·김천이 시로 승격, 1955년 경주읍이 시로 승격, 1963년 안동읍이 시로 승격되고, 울진군이 경북에 편입.